

고베 기타노 이진칸 거리의 역사

일본은 에도 시대(1603~1867) 동안 쇄국정책을 유지하고 거의 모든 외국과의 무역, 도항 및 접촉을 금지하였습니다. 쇄국 정책은 200년 이상 유지되었지만 1858년 일본이 5개의 서양 열강 국가들과 안세이 조약을 체결하면서 이 정책을 폐지하게 되었습니다. 1868년, 고베는 외국과의 무역이 개방된 몇 곳의 항구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당시 계획으로는 외국인들이 일하고 정착할 지역이라 예상했던 고베 해안가에 외국인 거주 지역을 설치할 예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에도 시대 말기의 혼란스러운 정국 때문에 거주지를 기간내에 완성할 수 없었습니다. 정부는 이쿠타와 우지가와 사이의 주변 지역을 외국인이 일본인과 함께 거주할 수 있도록 허가하였습니다. 많은 외국인은 후에 기타노초/야마모토도오리 지구가 되는 야마테 지역에 매력을 느꼈습니다. 이 지역은 외국인 거주지의 북쪽에 위치한 매력적인 시골 언덕 지대로, 완만한 경사를 이루는 언덕 위에서 항구와 바다의 풍경을 내려다볼 수 있습니다. 1880년대부터 이곳은 독특한 외국인 거주 지역으로 발전하였고 '기타노 이진칸 가이(北野異人館街)'로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각각 '이진(異人)'은 '외국인', '칸(館)'은 '집' '가이(街)'는 '지역'을 의미하는 일본어입니다.

20세기 중반까지 기타노 이진칸 가이는 200채 이상의 서양식 건축물과 일본식 건축물이 들어설 정도로 성장하였습니다. 이 지역은 일본인과 외국인이 서로 조화를 이루며 생활할 수 있는 장소로 알려졌습니다. 외국의 영향은 기술적 발전은 물론 라이프 스타일에도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고베의 이진칸 가이는 육식 식문화, 서양식 복장 및 골프의 영향을 일본에서 최초로 받은 지역이기도 합니다.

외국인들의 집은 '이진칸'이라고 불렸습니다. 독일인 게오르그 드 라란테와 영국인 A.N 한셀 등 실력있는 일본인이 아닌 건축가들 덕분에 고베의 많은 가옥 및 서양 건축물들의 디자인은 특히 뛰어난 품질을 자랑합니다. 동시에 일본의 디자인과 건축 기술이 서양의 기술들이 결합하면서 멋진 융합을 이루게 됩니다. 목수, 미장공, 석공, 기와 장인들은 대부분 일본인이었지만, 진보한 '국제화된' 기술 능력을 발전시켰습니다. '고베 이진칸 스타일'이 등장하였고, 베란다, 퇴창, 벽돌로 만든 굴뚝, 페인트칠 된 목재 보드, 회반죽 외벽 등이 이 스타일의 공통적인 특징입니다. 이 건축물들의 대부분은 일본인 종업원들에게 보다 편안한 일본 스타일의 건물 날개 부분과 연결되었습니다.

이 같은 서양식 건축의 대부분은 제2차 세계 대전으로 파괴, 전후 개발, 그리고 시간 경과로 인한 노후화로 소멸되어 갔습니다. 그러나 1960년경 시작된 보존 활동이 성공함에 따라 19세기에서 20세기초에 건설된 건축물 약 30여채가 오늘날에도 보존되어 있습니다. 이는 과거에는 활기 넘치던 외국인 주거지의 흔적이 거의 사라진 요코하마나 나가사키 등 다른 옛 개항지들과 현저한 대조를 보입니다. 이런 이유로 기타노 이진칸 가이의 수많은 서양식 주택은 일본 및 국제 사회의 역사와 문화에 있어 중요한 시대의 물적 증거입니다.